

견치와 농양의 처치

견치와는 결체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전방은 상순거근 및 구륵근으로 싸여있고 후방은 협근으로 싸여있는 부위로 상악의 견치, 소구치 또는 제1대구치 근심 협측치근의 병소로 부터 감염 된다.

구각거근은 견치와의 상방에서 기시하기 때문에 견치의 치근단은 구각거근 보다 하방에 놓여 있다. 때문에 견치의 치근단 농양이 진행되어 순측 피질 골을 뚫고 나올때 견치와에 농양을 형성하게 된다 (사진 1). 그러나 견치의 치근이 길어 구각거근의 기시부 보다 상방에 있을 경우, 견치의 치근단 농양은 구각거근과 상순거근 사이의 근막극(fascial space)를 따라 눈의 내측으로 나와 내, 상방으로확

산되며, 또는 후방으로 확산되어 눈의 외측에 농양을 형성하기도 한다.

임상소견을 보면

이환측 안면부의 종창으로 비순구가 없어지고 상, 하안검의 종창으로 눈이 감기게 된다(사진 2).

상순의 종창도 보이고 안면부는 촉진시 압통을 호소하며, 안면피부는 긴장 및 발적을 보인다. 특히 이부위에 안와하신경의 분지가 있어 때로 심한 동통을 호소한다.

치료는

전정부 농양시와 마찬가지로 구강내로 전후방으로 절개를 가한다. 증상이 완화된후 원인치아를 발거 또는 근관치료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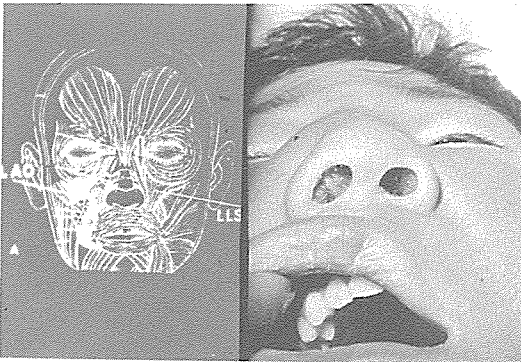


사진 1. 상순거근과 구각거근 사이의 농양으로 인한 우측 안면부 종창 및 비순구폐쇄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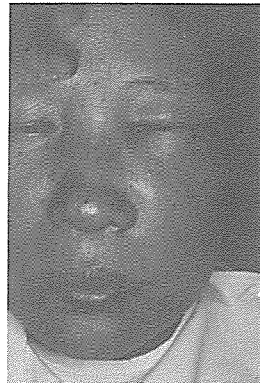


사진 2. 견치와 농양으로 인한 좌측안면부 종창.



사진 3. 상악우측 견치의 치근단 병소에서 형성된 견치와 농양으로 인한 피부 누공.

신일치과기공소

代表 孫 永 受

서울·중구 남대문로 5가 6-25(신한빌딩 402호)

☎ 756-2875 · 2876